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④ 부산 해동용궁사 향나무

죽은 속살이 피운 향에 묻은 '왜'

부산 해동용궁사에 가면 사찰을 각인시키는 두 개의 구(句)를 만난다. 산문 표지석에 새겨진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과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만복문 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듣는 것이다. 삼천대천세계에서 성주괴공하는 삼라만상은 왜 일어나는지, 공(空)과 연기(緣起)는 왜 있는지, 그 이면의 속사정 같은 걸 알고 싶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에 대한 깨달음의 언어를 남겨놓았고, 그래서 모든 게 스스로의 정진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 할 것 같아 '왜'라는 의문사에만 꽂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주문 옆 조릿대 사이로 관음성지 빨간 글씨를 보는 순간 항의성 질문은 잠시 내리고 관세음보살에게 우리 가족을 비롯한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기로 작심하면서 편안하게 용문석실을 통과해 백팔장수계단을 내려간다. 음습한 겨울숲이 익숙한 중부지방 거주자에게 보여주는 바다 같은 푸른 잎들, 그 앞에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석등을 보는데, '나는 왜 절을 찾는가'라는 반복의 질문이 튄다.

이중표 교수는 말한다. 불교는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불교를 통해서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 무엇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는 게 현실이지만, 불교는 괴로움 때문에 생긴 종교라고. 그래서일까? 온 세상이 극락정토이면 고통이 없겠지만, 사는 곳에 온갖 아픔이 있어 찰나라도 고통을 텅 비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상징들이 한곳에 집합한 절을 찾는 걸까?

대웅보전으로 향하려는데, 기와 담장 위로 덤불처럼 짙푸르게 솟은 향나무가 있어 발길을 잡아챈다. 좌회전하자마자 멀리 금빛 지장보살이 파도 소리를 들려주며 유혹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나무부터 보겠다는 작정이 앞서 약사불전에 들어간다. 정면에 팔공산 갓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처럼 머리에 넓적한 보개를 이고 계신 돌부처가 희게 빛나는데 그 위 맞배지붕 처마 아래 '雙香樹佛(쌍향수불)' 글자가 또 질문을 만들어낸다. 진짜 계신 부처인가?



부산 해동용궁사 향나무.

일단 의문은 접고 삼배부터 드린 뒤 주위를 둘러보는데, 쌍향수불 오른쪽에는 '陽양香향樹수, 남자 향나무, Men Juniper, 수령 200년', 왼쪽에는 '陰음香향樹수, 여자 향나무, Woman Juniper, 수령 200년'이라는 안내문이 나무줄기를 감고 있었다. 양향수는 두 그루라 Men이라 하고, 음향수는 한 그루라 Woman이라 하는지 궁금해 성심껏 살피는데, 밑동 주위에 향나무 비늘잎들이 수북하게 에두르고 있어 가늠을 중단하고 암수딴그루인 향나무 성별을 판별하려다 이마저 포기한다. 봄이면 가지 끝에 달리는 작은 수꽃이삭 혹은 암꽃이삭으로 암수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겨울이고 가끔 암수한그루도 있다고 하니 중하지 않은 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향기가 나서 향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 향의 진원지는 꽃이나 잎이 아니라 죽은 조직인 나무의 속살이다. 살아생전 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베어져서 오래 땅에 묻히면 묻힐수록 좋은 향을 낸다는 향나무의 향을 얻으려면 또 나무를 자른 뒤 인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슬프게도 향나무가 빛날 때는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며 땅의 산 자와 하늘의 죽은 자를 연결시켜주는 향불 연기가 피어오를 때이다. 다시 고개를 올려 쌍향수 가지 끝 잎들이 닿으려는 암막새와 수막새들을 보는데 생명체와 생명이 서로 맺으려는 인연이 어른거려 '왜'를 싣고는 대웅보전으로 내친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반복되는 관세음보살 독송이 애절해 아름다울까, 대웅보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도량이 반야용선으로 변신하는 날 속죄의 나를 실어갈 용들이 바다 가까이 진군해 있어 아름다울까, 고려 나옹화상에 의해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930년대 보문사로 중창했고 1970년 초 해동용궁사로 이름을 바꾼 관음성지 곳곳에 향나무들이 울울창창 있어 아름다울까?

고(苦)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우주에 한가득 진리의 향기를 나누신 부처님은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태어나 보리수(菩提樹) 아래에서 깨닫고 사라수(沙羅樹)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해수관음상이 바라보는 바다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왜'라는 질문은 퐁당 던지고, 다시 약사불전 쌍향수에서 108배라도 올리면, 내가 향을 싼 종이인지, 고기를 꿴 새끼인지 미욱하나마 분별하여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향나무 바늘잎 크기 정도는 이해하게 될까? 그럼 나는 이 겨울 새에게 먹힌 뒤 위산을 받아 화학작용을 거쳐 스스로 발아할 수 있는 향나무 열매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마음대로 변형이 되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향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럼 속인의 '왜'는 묻어버릴 수 있을까? 철썩 파도가 뺨을 때린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④ 백석의 '여승'

여승, 그 서럽고 높고 쓸쓸한
〈女僧〉

여승(女僧) / 백 석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고형진 엮음,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왜 그랬을까. 초등학교 시절, 나는 여승만 보면 눈물이 났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토방 앞에 서서 목탁을 치며 염불하는 여승에게 어머니는 쌀 한 바가지를 건넸다. 그러면 여승은 잿빛 바랑에 그 쌀을 받아 담았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1960~1970년대만 해도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을 하고 살았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었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한 쌀로 절간을 운영하며 먹고 살았다. - 그런데, 나는 탁발하러 온 스님들, 그 중에서도 여승의 염불소리와 얼굴만 보면 괜히 눈물이 났다. 어린 나에게 여승은 감히 가닿을 수 없는 높다란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 여승에게서 나는 경이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천사를 느끼고, 누님을 느끼고, 어머니를 느끼고, 고모를 느끼고, 이모를 느꼈다. 가닿지 못할 모습인데도 항상 포근하고 좋았다. 서럽고 짠하기도 했다. 이율배반적인 감정이었다.

문청(文靑) 시절, 그런 나에게 백석의 '여승(女僧)'이 찾아왔다. 진짜로 서럽고 짠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여승은 나의 영원한 '로망(Roman)'이 되고 말았다. 가슴 두근거리면서도 짠하고, 좋으면서도 서럽고, 높으면서도 포근하고, 누님 같으면서도 연인 같고, 이모 같으면서도 천사 같은, 로망이었다. 불순하게도, 불경스럽게도, 나는 그것을 '사모(思慕)'라고 이름 지었다. (짐승 같이) 나는 그런 여승과의 황홀한 사랑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나는 두 명의 '여승'을 더 만났다. 송수권의 '여승'과 유강희의 '여승'이다.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안에 누워서 고뿔을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을 쓴 여승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낮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발치로 바리때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사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얍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을 뒤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룻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송수권의 '여승', 송수권 시집 〈꿈꾸는 섬〉 중에서, 문학과지성, 1983)

해석이 필요 없는, 내 마음의, 꿈의, '여승'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년 뒤, 나에겐 또 한 명의 '여승'이 '연애'로 다가왔다.

"이승의 빛과 저승의 빛을 한데 섞으면/ 저런 빛일까/ 처연하게 아름다운 빛/ 나는 순간 합장을 하고/ 여승은 조용히 그 꽃을 가리켰다/ 그 꽃은 부용화였다/ 함박 비를 맞고 있었다/ 유난히 파르란 여승의 머리에선/ 범부채 냄새가 났다/ 빗방울보다 가벼운 가사가 소복이 여승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나는 외려 몸이 굳어지고 입은 굳게 닫혀진 채 그 무엇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걸 느꼈다/ 나는 그저 여승의 발부리 앞에 엎드려 누님이라고 단 한 번만/ 불러보고 싶었다/ 어린애처럼 소리 없이 울먹여보고 싶었다/ 여승은 절의 오래된 내력과 생의 덧없음에 대해 아직도/ 선 채 말하고 있었지만/ 내게는 잔잔한 미소로만 들리었다/ 오늘은 칠월칠석날 대적광전에선 법회가 끝나고/ 모두들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승은 극구 공양을 하고가라고 했지만 난 쫓기듯/ 그곳을 떠나왔다/ 내 전생의 누님 같은 여승은 꼭 부용화를 닮아 있었다"-(유강희의 '여승-귀신사에서', 유강희 시집 〈오리막〉 중에서, 문학동네, 2005)

작자(시인)는 다르지만, 세 명 다 똑같은, 아니 똑 닮은 '여승'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승'은 그대로 굳어져 나의 영원한 로망이 되어 있다. '여승'을 만나면 중[僧]답지 않게 지금도 내가 가슴 설레는 이유다. 또한 '여승'이라는 주제(제목)로 내가 아직까지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모하는 그 '여승'에게서 나는 아직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백석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름은 백0, 출생지는 00으로 나오는 시인이었다. 월북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석의 생몰연대는 1912~1996년이다, 본명은 백기행이고, 평북 정주 출신이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김영한(1916~1999, 법명 길상화)이 백석의 연인이었다. 백석은 그녀에게 '자야(子夜)'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길상사는 자야가 운영하던 고급요정 '대원각'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다.

나의 불순한 생각 또 하나. 지금도 나는 가끔 남편도 떠나버리고(가출), 딸도 서럽게 떠나버린(죽음) 30대 중후반의 '슬픈 여성'이 삭도로 삭발하는 장면을 꿈꾸곤 한다. '여승'에 대한 지독한 나의 연모다.

〈불교문학연구소장〉

탈 종 공 고

• 포교원명 : 은혜사 포교원
• 교 임 : 보리심 (속명 : 장옥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34(진관동) 수원빌딩2층

위 포교원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청룡암
• 주 지 : 청 룡 (속명 : 이종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3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대한불교관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